

감사의 달
주수 감사 주일
선교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내가 한 기도
나는 잊어도
주님은 기억하신다
속예 품고만 잊어도
이루어주신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왕상 9:3

“민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민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November 20, 12:30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김훈테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시편 100 : 1-5 가장 큰 감사제목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찬송 / 429장 -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통일찬송가 489장)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최선운 집사. 구 민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가 348장)
삶과 세상으로	* 찬 송 / 589장 - 넓은 들에 익은 곡식 1, 3-4 절 (통일찬송가 589장)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호세아 2:14-15

가시와 담으로 막으신 우상숭배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가족과 성도와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 더 많은 나눔을 추구하는 교회
- 감사주일** 한 해 동안 가정, 교회 사역, 직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합니다
- 선교주간**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 찬양집회/찬양사역 세미나 결산과 평가** 오늘 점심 친교후 가집니다.
(주관: 행정사역)
- 기도 가정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 행정사역 2022년의 결산**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정결산은 11월 27일 주일로 정합니다.
- 2022년 사역을 위한 헌신과 수고에 감사합니다. 더 많은 열매가 넘치는 **2023년 사역과 예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기도합니다.
- 성경공부와 기도모임**
(1) 주일 오전 11:00 /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2) 주일 저녁 8:00 / 인물 성경공부
(3) 화요일 오전 10:00 / 교회 성장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니다.

▶ 11월의 사역 - 추수감사주일(20) 선교주간(20-26) 선교주일 (27)

♥000000000000 김지수(2) 박진성(5)

- 기도제목**
- 학생들의 학업과 전 인격적인 성장
 -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 건강과 평안
 -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 천국을 향한 소망과 평안
 - 교회 사역의 변화와 건강한 성장
 - 중고등부 전임사역자 청빙과 Youth Ministry 성장을 위해

예배	주일예배기도	11/20	11/27	12/4	12/11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최내권집사	최선운집사
섬김이	주일헌금위원	11/20	11/27	12/4	12/11
		최선운집사/구 민집사	구은강집사/박진성집사		
주일안내위원	11월		12월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마음의 상태** / 누가복음 8:4-15

예수님의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자신이 옥토가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비하하지 말아야한다. 또한 형제 자매를 열매를 맺지 않은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하지도 말아야한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옥토로 변하는 과정을 지나고 있다. 바울 역시 스테반을 돌로 칠 때, 핍박을 당하자 배교한 부겔로와 히모게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모두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 안락한 삶을 위해 전도 여행을 포기한 마가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마가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길가에서 옥토로, 돌밭에서 옥토로, 가시떨기에서 옥토로 변했다.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이다. 순간에 변하기하고, 서서히 변할 수도 있다. 그리니 옥토의 마음으로 변한다는 소망을 갖자. 변하지 않는 자신이나 이웃을 향해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서로 용납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변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감사제목 / 시편 100:1-5

시편 100 편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기뻐하라.”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셋째, 하나님의 인자함이 영원하고, 성실함이 대대에 이른다.

감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명령이다.

창조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자.

가장 큰 감사제목 / 시편 100:1-5

시편 100편은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외친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명시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창조와 선택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분명한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으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는가?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로 불리기에 참으로 창피한 모습 일 때가 많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선포하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염없이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인 것이다. 양은 방향감각도 없고, 후각이 발달하지도 않아 목자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양의 생존은 오직 목자에게 달려 있다. 우리도 그러하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하나님의 인자함과 성실함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함은 영원하고, 성실함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다.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도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다.

시편 100편은 감사하라는 명령이며, 분명한 이유를 말한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의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 하나님은 감사의 이유이며 감사의 대상이 되신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사단의 거짓말에 귀를 닫아라.

지난 일 년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가장 먼저 기도가 잘 안 되었다. 그저 원망이나 한숨, 혹은 알맹이 없이 시간만 때우는 기도를 했다. 무릎을 꿇을 영적 힘이 사라진 것만 같았다.

‘기도가 안 된다니? 뭐가 잘못된 거야?’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내가 잘못된 것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내에게 한 잘못이었다. 돌아보니 아내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제대로 된 선물을 준 기억이 없었다.

생각은 이어졌다.

‘맞아... 난 교회를 개척한 후 십 년 동안이나 교인들을 실망시켰어.’

그동안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의 얼굴이 한 명씩 떠올랐다. 지금은 그저 모든 이별이 다 내 잘못 같았다. 그러자 교회 개척 사역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생각하는 것마다 일일이 심판받을 일 같았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휴대폰을 껐다.

며칠 뒤 주일예배가 있었다. 하필 나는 목사였고 억지로 설교했다.

예배 후엔 소그룹 모임도 있었다. 억지로 모임 인도를 했다.

그때 한 여집사님이 이야기를 꺼내며 울기 시작했다.

“제가요, 지난주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직장에서 전도하며 제자 그룹을 이끌고 있는 대단한 분이였다.

그런 분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지 모두 귀를 기울였다.

“모든 일이 다 제 탓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 중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 사단의 참소를 내 음성보다 더 집중해서 듣고 있단다.’

제가 그랬어요. 모든 게 내 잘못이고, 내가 벌 받아서 일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렇게나 축복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단의 참소에 귀 기울였어요, 저는...”

진솔한 나눔에 내 마음이 뜨거웠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 내게 말씀하심을 알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이 차올랐다. 공감이 회개로 이어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곧 내 이야기였다.

올바른 회개를 하자 영적 귀가 트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순간 물려와 생각을 가득 채웠다.

그분은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어떻게든 말씀을 듣게 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반복해서 주신다. 죄로 하나님과 멀어져 평안을 잃고 신음하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시다.

사단의 참소는 성경 말씀과 반대된다. 특히,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목소리는 거짓중의 거짓이다. 진실은 성경 말씀에 있다.

즉 예수님이 당신과 동행하신다. 당신은 지금 당장 성경을 펼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존재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만약 일이 잘 안 풀린다면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돌이킬 길은 없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귀를 닫아라.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돌이킬 기회이며, 평안을 되찾을 은혜의 때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자.

-불안에서 평안으로, 송준기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8:0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TUESDAY 10:00 A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